KMI 국제물류위클리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제625호
2022.4.13
www.kmi.re.kr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 **감수** : 길광수 ·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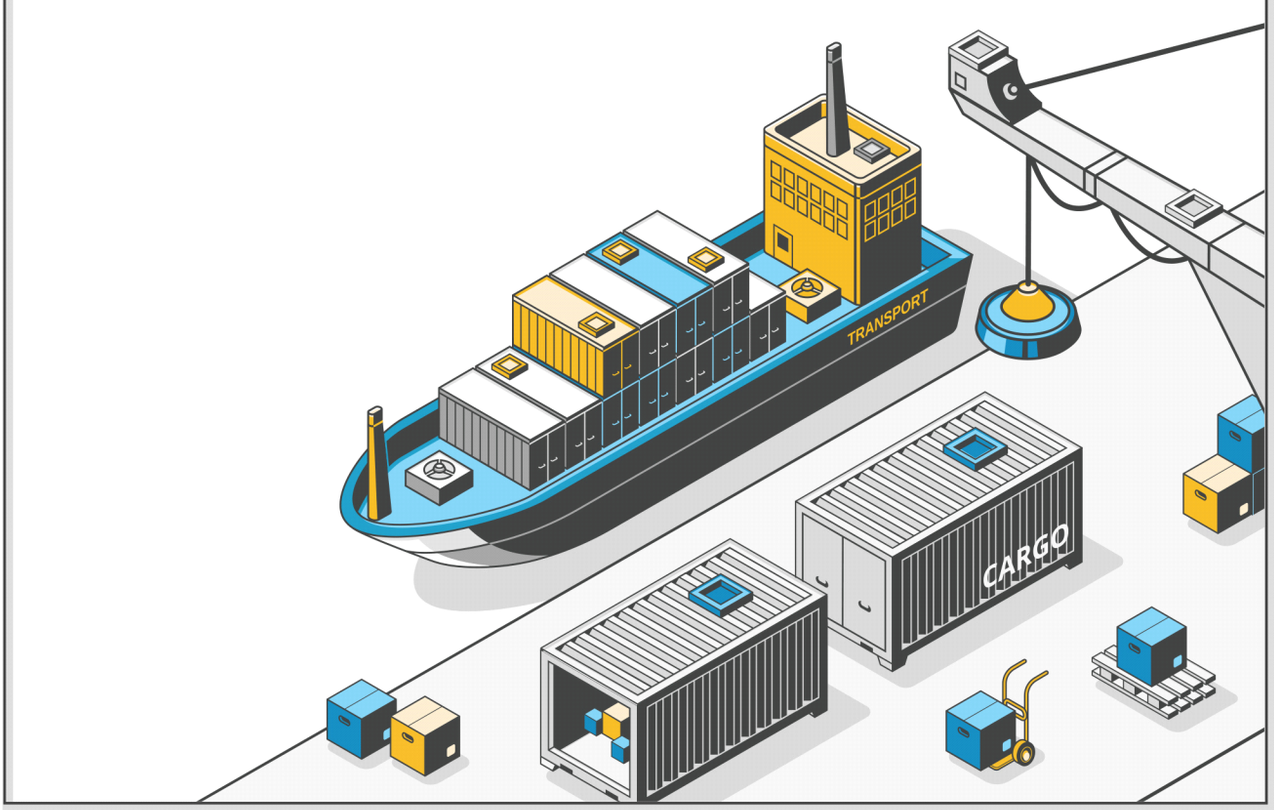
국제물류 통계
- 지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라스트 마일이 풀필먼트 앞서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Geodis, 아세안 물류시장 공략 위해 Keppel Logistics 인수합병 완료

유럽 물류시장 동향
-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사슬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 자국 중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공지사항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국제물류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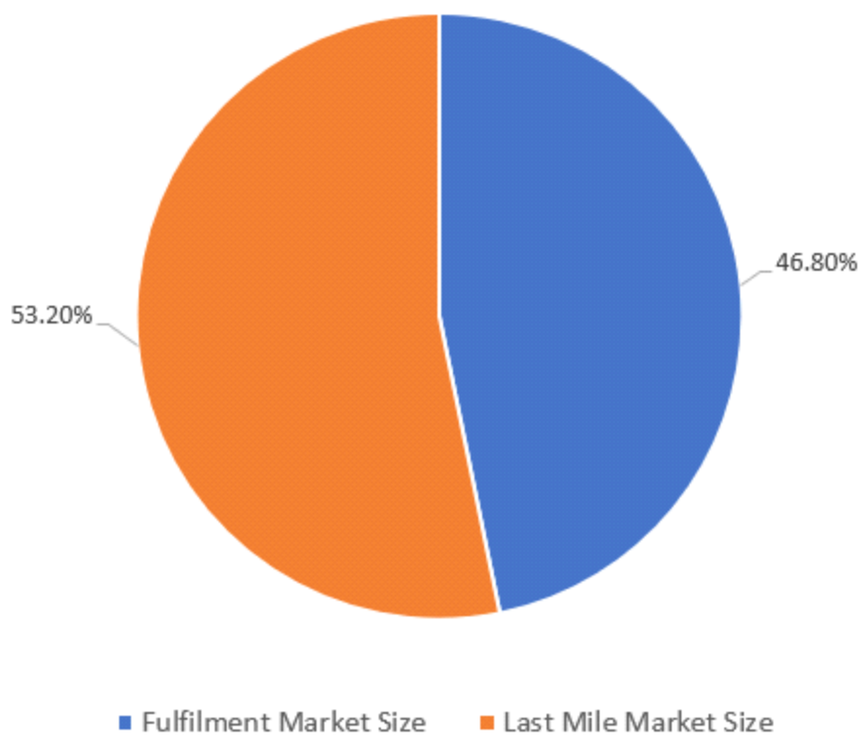
국제물류 통계

지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라스트 마일이 풀필먼트 앞서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풀필먼트[1]와 라스트 마일[2] 부문으로 구분한 결과, 라스트 마일 시장 규모가 근소하게 큼

- Transport Intelligence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에서 풀필먼트와 라스트 마일 시장 규모는 각각 2,066억 749만 유로, 2,348억 6,150만 유로로 46.8%와 53.2%를 차지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주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북미, 그리고 유럽의 경우 풀필먼트 시장이 각각 47.5%, 47.9%, 47.3%를 차지하는 반면 라스트 마일 시장은 각각 52.5%, 52.1%, 52.7%를 차지함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풀필먼트/라스트 마일 비중(2021년)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E-Commerce: E-Fulfilment and Last Mile Market Size 2022*, 2022.

1) 풀필먼트(Fulfilment)란 고객을 위해서 물류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입고, 검수, 적재 관리, 피킹, 패킹, 출고 등을 통합해 물류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2)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란 물류 및 유통업계에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배송 속도와 품질, 수령의 편의성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 **2021년도에 라스트 마일 시장 규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및 북미 지역 중심의 택배량 증가로 볼 수 있음**
  - 택배량의 급증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택배업체들 사이의 가격 경쟁이 발생한 반면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사슬 및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해 가격 전가로 대응함
  -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 지역 간의 이러한 상반된 대응은 택배업체들의 수에 따른 차이로 중국의 경우 많은 택배업체가 있어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미국의 경우 UPS 및 페덱스와 같은 소수 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동남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라스트 마일 시장은 아직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2021년 8월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베트남에서 배송조회 솔루션 FedEx Delivery Manager[3]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9월에는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의 물류 스타트업 회사인 닌자 밴[4]의 시리즈 E 펀딩에 참여했음을 발표했으며 J&T 익스프레스 싱가포르는 창이항공화물센터와 Penjuru에 두 곳의 전략적 허브 개장을 발표함
  - 유럽의 경우 2021년 5월 DHL 익스프레스가 유럽 시장의 국경 간 배송서비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항공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페덱스가 당일 배송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용 가능함

3) FedEx Delivery Manager는 수취인이 배송 옵션을 지정하게 해 원하는 장소와 날짜에 발송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덱스의 배송 지원 서비스
4) 닌자 밴(Ninja Van)은 동남아시아의 각 나라별 국내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택배회사로 특정 국가 안에서의 물품 배송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 간의 수출입, 즉 국경 간(cross border) 배송도 또한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E-Commerce: E-Fulfilment and Last Mile Market Size 2022*, 2022.

이재호 전문연구원
051-797-4635, jhlee8604@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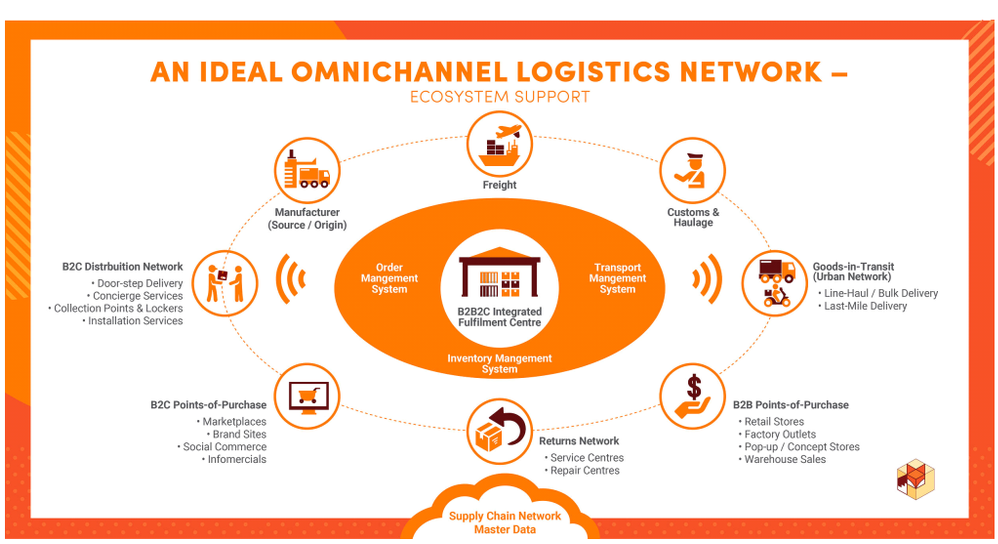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Geodis, 아세안 물류시장 공략 위해 Keppel Logistics 인수합병 완료

- Geodis가 싱가포르의 Keppel Logistics와의 인수합병 체결을 완료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8천만 달러에 달함
  - 동 인수합병은 Keppel Logistics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인수 규모는 약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됨
  - Keppel Logistic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포워딩 기업으로 말레이시아 및 호주를 중심으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5,000평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 내 계약물류 부문 상위 5위 안에 속하는 기업으로 아세안 시장 전역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동 인수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Geodis의 아세안 물류시장 진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로 플랫폼 기반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 Geodis는 약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목표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시장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음
  - 동 인수합병으로 계약물류 및 디지털 옴니채널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솔루션 출시 및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특히, Keppel Logistics가 보유한 UrbanFox 플랫폼 및 물류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임

Keppel Logistics의 UrbanFox 플랫폼



자료 : www.urbanfox.asia, (검색일 : 2022.4.12.)

KMI 국제물류 위클리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Geodis는 동 인수합병으로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의 계약물류 및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임
  - Geodis 관계자에 따르면 Keppel Logistics가 보유한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입지 강화 및 옴니채널 확대를 통한 자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동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베트남 및 태국 등 아세안 핵심 물류시장에 대한 진출 및 추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 www.scmr.com, (검색일 : 2022.4.12.)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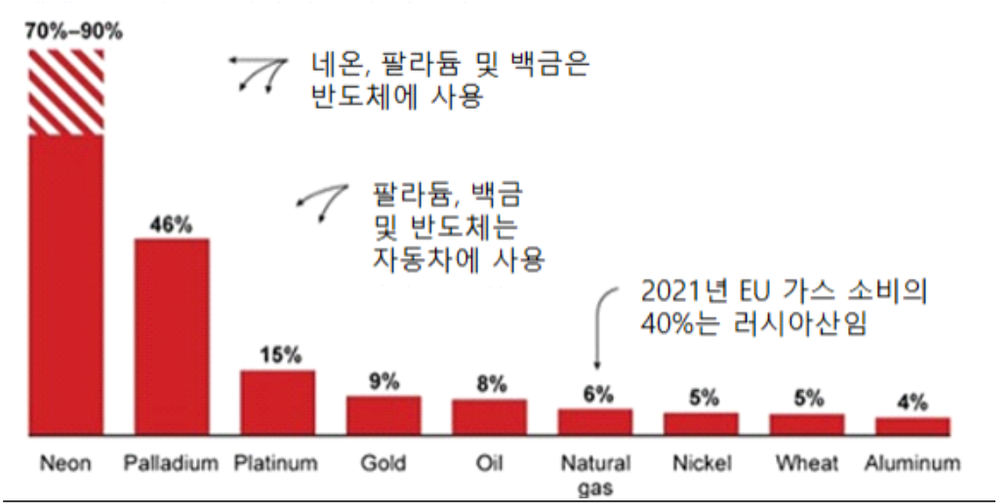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 위클리

유럽 물류시장 동향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사슬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

- 러시아와의 무역제한은 니켈, 텅스턴, 네온가스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주요 전략 금속, 합금 및 기타 파생 금속제품(예: 배터리)의 생산을 감소시킴
  - 철강 가격은 국제 기업이 철강 생산 능력을 늘리고 필요한 석탄 사용량을 조절할 경우 안정화 될 수 있음
  - 글로벌 에너지 용량이 재조정될 때까지, 특히 겨울철 난방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제재 강화가 지속될 경우 석유 및 가스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원자재 공급에서 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www.scmr.com/article/war_in_ukraine_responding_to_supply_chain_disruption, (검색일 : 2022.04.12.)

- 전쟁에 따른 물류 리스크에 대해 고객은 물류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 방법(예, 복합운송, 신규 루트 개발 등)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객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사슬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함
  -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위험 평가:** 제품 개발 및 공급 기반에서 생산 및 이행에 이르는 가치 사슬에 대해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를 수행해 주요 위협에 대한 가능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및 고객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규모를 평가해야 함
  - **공급사슬 위험 예측 모니터링 개발**: 지정학적 무역 긴장, 산업 수요 대비 생산능력비율, 공급업체 상태, 상품 생산능력과 같은 잠재적 위험의 주요 지표를 식확인해야 하며, 위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기경보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야 함
  - **인플레이션 대응**: 기업은 고객 수요, 상품 비용, 공급사슬 제약 및 노동력 가용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관리에 관한 전략적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위험에 대한 완화 전략 마련**: 제품 및 프로세스 재설계, 대체 소스, 네트워크 구조, 생산능력 버퍼, 백업 또는 물류 흐름을 위한 유연한 경로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 완화 전략을 계획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위치를 파악해야하고, 제조의 경우 노동 및 원자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야함
- **Full stream 관점의 관리:** 운영, 지속 가능성, 규제 및 회복탄력성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재에서 완제품,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의 각 계층에서 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www.scmr.com, (검색일 : 2022.04.12.)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미, 자국 중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 지난주 Financial Times 등 유력 일간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도했음

- 특히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SK 하이닉스는 영국계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과 M&A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거론했음
  -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편입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됨

- 삼성전자는 이미 170억 달러를 투입해 미 텍사스주에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음
  -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규모로 평가되며 2024년 하반기에 공장이 가동되어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에 사용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

-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도 함께 동참하고 있음

- TSMC는 2022년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에 400억 엔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20% 늘렸으며 일본 소니와 덴소는 이곳에 각각 570억엔과 400억엔을 투자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도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위해 4,000억엔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5나노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직접 투자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인텔, 마이크론, ADI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으며 '2022년 미국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of 2022)' 및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채택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초당적 반도체 지원 법안 'CHIPS[5]'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500억 달러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조설비, 소재 등 핵심부문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은 반도체 관련 R&D 재원 지원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지원을 강화해 반도체 산업 내 유능한 인력확보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미국 혁신경쟁법과 2022 미국경쟁법

품목	미국 혁신경쟁법(상원)	2022 미국경쟁법(하원)
국립과학재단 기술부서	인공지능이나 드론과 같은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5년 동안 290억 달러 지원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5년 동안 133억 달러 지원
에너지부에 대한 예산	향후 5년 동안 170억 달러 제공	향후 5년 동안 153억 달러를 제공하고, 양자정보 과학, 고강도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지원
연구 역량 구축	과거 연구 예산 배정이 적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제공	미국혁신경쟁법과 동일
연구 보안 강화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금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금지

자료 :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미국, 하원 2022 미국 경쟁법 발표' (2021.11.24.) 참조

참고자료 : www.ft.com, https://now.k2base.re.kr, (검색일 : 2022.4.11.)

황선일 부연구위원
051-797-4675, shwang@kmi.re.kr

5)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KMI 국제물류 위클리

공지사항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모집기간

2022년 3월 23(수) 09:00 ~ 5월 4일(수) 16:00 까지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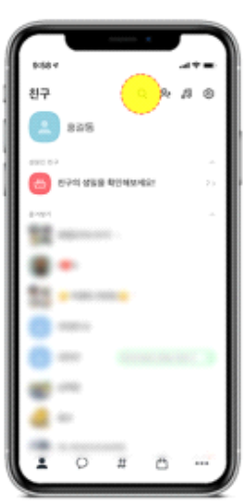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 위클리

공지사항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